

가 증가하였으며 79년의 13.0%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最大需要는 5,457kW로서 前年對比 增加率이 1.9%로서 79년의 4.6%에 비해 약간 낮다.

電力需要實績

區 分	販 賣 量 (千kWh)	構 成 比	前 年 對 比 增 加 率
產 業 用	22,913,331	70.0%	5.4%
家 庭 用	5,317,453	16.2%	6.8%
公 共 用	1,169,890	3.6%	5.0%
商 業 及 서 비 스 業	3,333,744	10.2%	0.7%
計	32,734,418	100.0%	5.1%

나. 發電設備

지난해 말의 全体發電設備는 9,391kW로 水力이 1,157kW로서 12.3% 原子力이 587kW로서 6.3%이며 火力發電이 7,647kW로서

# 長期電源開發計劃의 展望

金 世 鍾 動力資源部 發電課長

## 1. 電力需給現況

### 가. 電力需要

지난 한해 동안의 總販賣 電力量은 327億kWh로서 前年對比 5.1%가 증가하였다. 이는 79년의 前年對比 增加率 14.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써 지난해의 極甚한 景氣不況의 影響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다시 部門別로 보면 産業用이 229억kWh로서 全体の 70.0%이며, 家庭用이 53億kWh로서 16.2% 公共用이 12億kWh로서 3.6% 그리고 商業用이 33億kWh로서 10.2%를 차지하고 있다.

發電 電力量도 372億kWh로서 前年對比 4.6

81.4%를 點하고 있다. 火力發電은 다시 石油火力이 5,687kW, 石炭火力이 725kW이며 內燃이 1,235kW이다. 따라서 石油火力和 內燃을 合한 石油火力은 6,922kW로서 全体發電設備의 73.7%를 點하고 있다.

### 다. 電力需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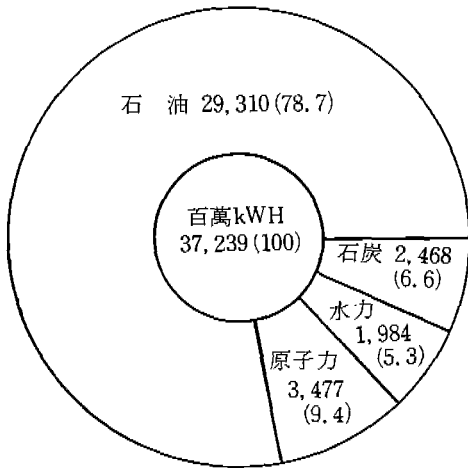
지난해의 電力供給 豫備率은 33.2%로서 電力需給上 何等의 支障이 없었다. 이를 다시 內容上으로 보면 施設容量이 9,391kW, 그 중 供給可能容量이 7,270kW이며 最大需要가 5,457kW로서 供給豫備電力은 1,813kW가 된다. 이렇게 볼 때 電力豫備率이 너무 높은 結果를 가져 왔으나 이는 지난 한해 동안의 甚

한 不景氣로 大部分의 工場 稼動率이 低調했던 데 起因한 것으로 본다.

**라. 燃料消費量과 發電量**

지난 한해 동안 發電用으로 使用한 燃料消費량을 보면 無煙炭이 1,645千屯, BC油가6,978千kℓ이며 輕油가 109千kℓ이다. 또한 總發電量 372億kWH를 使用燃料의 種類別로 나누어 보면 石油가 293億kWH로 78.7% 石炭이 25億kWH로서 6.6% 水力이 20億kWH로서 5.3% 그리고 原子力이 34億kWH로서 9.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消費한 全体 B.C油 消費量은 92,956千Bbℓ이며 그 중에서 47.2%인 43,892千Bbℓ을 發電用으로 消費하였다.

發電量 構成



**마. 發電原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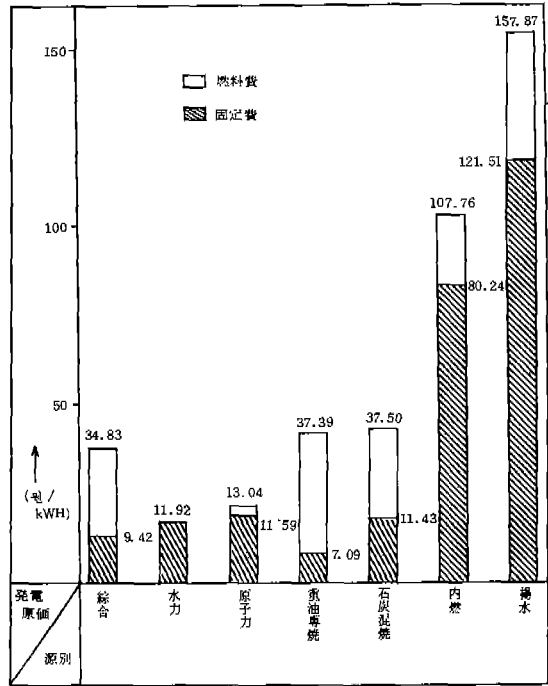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여러 차례에 걸친 石油價格의 引上으로 因하여 發電原價도 時期에 따라 差異가 있으나 平均 發電原價는 34.83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種別로 보면 水力이 11.92원 原子力이 13.04원 重油專 燒火力이 33.39원으로서 水力과 原子力發電의 原價가 重油專 燒火力에 비해 월등히 低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한해 동안 原子力發電은 kWh 당 21.79원의 利益을 안겨준 셈이며 年間 758億원, 하루 平均 約 2億원의 利益을 낸 셈이 된다.

**2. 電力需要展望**

**가. 電力需要**

電力需要 增加率은 經濟成長率과 不可分의 關係에 놓여 있다.

發電原價比較



80年度 우리 나라 經濟는 -5.7%의 類例없는 마이너스 成長을 記錄하였으며, 이에 따라 電力需要도 5.1%의 成長에 그쳤다.

最大需要도 79年의 4.6%에 이어 80년에는 1.9%의 低成長에 머물렀다. 이는 過去 10個年 간의 電力需要의 年平均 成長率이 17.2%이었음을 감안할 때 79年과 80年의 電力需要成長의 鈍化는 分明 全般的인 景氣沈滯에 따른 하나의 異變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81年度의 經濟成長率은 6%程度가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으며, 82년부터 91년까지는 年平均 7.5~8.0%가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이러한 前提下에서 볼 때 앞으로의 電力需要는 81年 8.7%, 82년부터 91년까지는 年平均 約 11%의 成長이 可能할 것이다. 따라서 電力需要量은 80年의 327億kWH에서 86年 600億

kWh 91年 1,000億kWh 程度가 될 것이며, 이를 기름으로 換算한다면 80年의 5,200萬Bbl에서 86年 9,000萬 Bbl 91年 1億 6,000萬Bbl 이 되며, 이를 기름으로만 供給한다고 한다면 86년에는 年間 4,000萬Bbl 91년에는 1億Bbl 의 기름을 더 必要로 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最大需要에 있어서는 86年의 546萬kW에서 86년에는 1,100萬kW 91년에는 2,000萬kW 程度로 늘어날 展望이다.

#### 나. 所要發電設備

電力需給의 安定을 期하기 위해서는 約 20% 程度의 豫備電力이 必要하다. 그리고 發電設備은 每年 定期的인 보수를 하여야 하므로 全体 發電設備의 約 10%를 補修容量으로 公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86년까지 約 800萬kW, 91년까지 約 1,000萬kW의 發電所를 새로 建設하여야 하며, 每年 平均 150~200萬kW의 發電所를 建設하여야 한다.

### 3. 可用 에너지資源

#### 가. 國內 에너지資源

우리나라의 可用에너지 資源으로서는 無煙炭, 水力, 潮力과 若干의 核燃料를 들 수 있다. 無煙炭은 可採埋藏量이 7.5億屯으로서 可採年數는 約 30年間으로 보고 있다.

無煙炭은 國民燃料의 大宗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民需用 供給에 優先하게 될 것이므로 發電用供給은 制約을 받게 될 것이다. 水力은 總 包藏水力이 約 300萬kW로서 그 중 22%에 該當되는 80萬kW를 이미 開發하였고 91년까지 約 70萬kW를 開發할 計劃이다. 그외에 經濟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곳이 90萬kW程度가 되나 아직 具體的인 開發計劃은 없다.

우리나라 西海岸은 優秀한 潮力地點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總 包藏潮力은 約 174萬kW로 推進되고 있으나 港灣開發, 간척事業 등과 重復되는 地點을 除外하면 開發可能地點은 겨우 1~2個所에 不過하다.

原子力發電所의 燃料로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確認可採埋藏量은 約 5千屯으로 推算되고 있으며 이는 古里原子力發電所 1號機에 約 30年

間 使用할 수 있는 量에 該當되나 國內 우리나라 鑛은 品位가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經濟性이 없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賦存에너지資源은 賦存量 自体도 微微할 뿐 아니라 開發可能한 資源도 極히 限定이 되어 있다.

#### 나. 輸入可能 에너지資源

輸入可能 에너지資源으로서는 石油, 天然가스, 石炭 그리고 우리나라를 들 수 있다. 石油은 可採埋藏量이 約 6,400億Bbl로서 可採年數는 30年 程度로 보고 있다. 따라서 石油은 資源面에서 매우 不安한 立場에 놓여 있다. 天然가스는 可採埋藏量을 約 70兆m<sup>3</sup>로 볼 때 可採年數는 50年 程度로 推定하고 있으며 資源確保面에서는 石油보다는 有利하다. 그러나 天然가스는 公害가 없는 高級燃料일 뿐 아니라 輸送, 貯藏上 特別한 技術을 要하기 때문에 오히려 石油보다 비싼 高價에너지에 屬한다. 다만 天然가스는 都市燃料의 供給이라는 側面에서 重要한 에너지資源이 되고 있다.

石炭은 可採埋藏量이 約 6,400億屯으로서 可採年數는 約 200年으로 보고 있다. 資源確保面에서 石炭은 가장 有利한 石油代替 資源이긴 하지만 石炭은 輸送, 貯藏과 取扱이 不便하고 많은 公害를 誘發한다는 點에서 매우 不便한 에너지資源이다.

우리나라는 可採埋藏量이 225萬屯으로서 可採年數는 60年 程度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現在 研究開發 段階에 놓여 있는 高速增殖爐 技術이 確立된다면 우리나라의 利用度를 現在보다 50~60倍로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可採年數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며 적어도 자원면에서는 우리나라는 事實上의 無限한 石油代替 에너지資源이 될 수가 있다.

#### 다. 燃料價格

最近들어 國際原價油의 大幅的인 引上으로 國內 石油類 價格도 大幅 引上되었다. 發電用 燃料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B.C油의 價格을 보면 79.1.1 當時 1당 42.69원이었으나 80년 12月31에는 152.18원으로 무려 3.6배가 引上되었다. 그러나 有煙炭 價格은 比較的 安定勢를 維持하고는 있으나 80년부터 서서히 引上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有煙炭價格도 멀지않아 相當한 引上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 價格도 數年間 安定勢를 維持해왔으며 近來에 와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볼 때 發電用 燃料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石油의 依存度에서 脫皮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問題가 되고 있으며 적어도 現時點에서는 有煙炭과 우라늄으로 그 脫出口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 4. 電源開發展望

### 가. 基本 方向

電源開發事業을 推進함에 있어 가장 重要한 것은 어떻게 하면 石油依存度を 줄일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石油依存度を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 短期的으로는 우선 電力消費를 줄여 한 한다. 電力消費를 줄이는 것은 곧 기름의 需要를 줄이는 것이며 그만큼 기름을 確保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石油를 使用하는 發電所의 燃料를 有煙炭과 같은 他燃料로 轉換하는 것이다.

이미 稼動中에 있는 石油發電所의 燃料를 轉換한다는 것은 결코 容易한 일은 아니다. 發電所의 燃料를 轉換하기 爲해서는 轉換하고자하는 燃料의 輸送, 貯藏에 必要한 立地의 條件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원대한 發電所의 設備를 改造하며 그것이 技術的으로서 經濟的으로 妥當하여야 한다.

그리고 長期的으로는 石油를 使用하지 않는 發電所를 建設해야 한다. 原子力과 有煙炭 發電所 建設을 서두르는 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原子力을 많이 建設할 것인가 有煙炭을 많이 建設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매우 重要하다.

에너지 價格은 相對的이기 때문에 石油價格이 인상되면 核燃料과 有煙炭 價格도 반드시 引上될 것이며 現時點에서 有煙炭과 우라늄의 價格이 低廉하다. 해서 앞으로는 繼續해서 低廉하리라는 保障은 없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原子力發電所 建設計劃에 있어 高速增殖爐의 導入問題가 매우 重要한 政策課題로 登場하게 된다. 그리고 보다 長期的으로는 미래를 爲해서 代替에너지를 開發하여야 한다. 지금은 技術的으로나 經濟的으로 妥當성이 없지만 90年代에 實用화가 期待되고 있는 石炭의 液化, 또는 Gas化와 太陽熱의 利用 등과 같은 代替에너지 利用 技術은 물론이요 風力, 地熱, 潮力, 中·小水力과 같은 에너지도 그 量은 적지만 利用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資源을 開發, 利用하여야 한다는 點에서 지금부터 研究開發에 着手하지 않으면 안된다.

### 나. 發電所建設 展望

#### (1) 石油火力

發電用 燃料의 石油依存度を 줄이는 방법은 石油發電所를 더 以上 建設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既存 石油火力發電所의 燃料를 石油 아닌 石炭이나 天然가스 등으로 代替하는 것이다. 石油 代身 石炭을 使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發電設備를 全面 改造하여 石炭을 直接 使用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發電設備의 改造 自体가 결코 容易한 일이 아니므로 發電所別 技術的, 經濟的 改造의 妥當性を 상세히 檢討해 보아야 한다.

그 외에도 石炭을 가스化 또는 液化하여 使用하는 방법과 石炭을 粉말처리하여 만든 石炭-石油 混合燃料(COM)를 使用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아직은 實用化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現時點에서 分명한것은 石油火力發電所는 現在 建設中인 以外에 이 以上: 追加建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現在 建設中에 있는 石油火力發電所는 平澤火力3.4號(350kW×2基)가 있으며 追加 계획은 없다.

#### (2) 原子力發電

原子力發電은 가장 效果的인 石油 代替에너지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原子力發電도 전혀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다. 原子力發電의 燃料인 우라늄도 에너지資源이란 點에서 石油와 같은 價格波動을 假想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現時點에서 볼 때 原子力發電은 分明히 石油火力은 勿論 石炭火力에 比해서도 經濟性이 有理한 것이 事實이지만 原子力發電所를 着工하여 正常稼動하기까지에는 7年이란 긴 세월이 所要되므로 그 동안에 우리나라價格이 급격히 引上될 境遇 原子力發電의 經濟性이 반드시 石油나 石炭에 比해 有利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高速增殖爐의 實用化 展望이다. 高速增殖爐는 輕水型 原子爐에 比해 效率이 높기 때문에 燃料消費量이 훨씬 줄어들게 되어 高速增殖爐가 實用化되면 우리나라資源 問題는 걱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建設하는 原子力發電所의 原子爐型을 繼續해서 輕水爐로 할 것이냐 아니면 高速增殖爐로 할 것이냐 하는 問題가 대두된다. 어쨌든 代案이 없는 現時代에서는 原子力發電所의 建設을 促進하는 것이 가장 經濟的이기 때문에 當분간은 原子力을 主宗으로 하는 電源開發事業의 推進은 不可避하다고 본다.

現在 建設中에 있는 原子力發電所는 모두 8基 6,829千kW이며 91년까지는 900千kW級 3~4基를 追加建設할 展望이다.

### (3) 石炭火力

石炭은 한 때 石油에 밀려 斜陽化되어 왔음이 事實이나 近來에 와서 石油價格이 急速히 引上됨에 따라 새로이 石油代替에너지 資源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石炭도 輸入에너지 資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石炭은 아직도 石油에 比하여 埋藏量이 豊富하고 資源이 全世界에 고루 分布되어 있으며 價格이 低廉하다는 點에서 石油보다는 供給의 安定을 期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그러나 石炭도 遠距離 輸送을 해야 하며 石炭의 輸送, 貯藏 等 그 取扱이 不便하며 公害要因을 內包하고 있다는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石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느 때인가는 價格波動의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는 것이며 電源開發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點까지를 考慮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름은 石炭은 原子力 다음가는 代替 에너지 資源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石炭火力發電所의 建設도 擴大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現在 建設中인 石炭火力發電所는 모두 4基 2,120千kW이며 91년까지 500千kW級 4~6基程度를 追加로 建設할 展望이다. 이 외에도 國內 忠南地區에 散在해 있는 低質無煙炭의 活用을 爲해 低質炭發電所 200千kW의 2基를 建設中에 있다.

### (4) 水 力

水力發電은 初期 投資費가 많이 든다는 短點은 있으나 일단 建設하게 되면 燃料費가 必要 없이 半永久的으로 에너지를 生産할 수 있으며 無煙炭과 더불어 國內 可用에너지 資源이라는 點에서 可能한 範圍內에서 積極的으로 開發해야 할 必要가 있다.

더우기 最近 石油價格이 急速히 引上됨에 따라 從前에는 經濟性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地點들도 이제는 經濟性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地點들을 찾아 積極的으로 開發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建設한 水力發電所는 大部分이 多目的 댐이었으나 앞으로는 中小規模의 發電單 一目的 댐의 開發도 並行推進함이 바람직하다.

現在 建設中에 있는 水力發電所는 忠州댐 한 곳 뿐이지만 91년까지 約 100萬kW를 追加로 建設할 展望이다.

### (5) 潮 力

潮力도 水力和 마찬가지로 國內 賦存資源의 하나이며 半永久的인 에너지資源이라는 點에서 積極 開發할 必要性을 느낀다.

潮力은 現時點에서는 經濟性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石油價格이 계속 引上될 것이라는 假定을 한다면 언젠가는 經濟性을 가질 것으로 본다.

潮力은 水力보다도 더 많은 初期 投資를 必要로 하며 潮水의 간만 時間에 따라 發電出力이 一定치 못하다는 短點이 있기는 하나 워낙 國內 賦存資源이 不足한 우리로서는 지금부터

潮力開發에 拍車를 加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潮力發電 候補地로 選定한 加露林灣에 對한 타당성 調査를 하고 있으므로 그 結果가 나오면 具體的인 計劃이 밝혀질 것이나 現展望으로 보아 80年代 後半期까지는 潮力發電所 1個所 建設은 可能하다고 본다.

(7) LNG

近來에 와서 液化天然가스(LNG)의 輸送 技術이 向上됨에 따라 LNG를 燃料로 使用하는 LNG發電 技術도 상당히 發達하였다.

LNG는 公害가 없는 無公害 燃料로서 이웃 日本의 境遇 發電用은 勿論 都市가스로서도 널리 普及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長期的으로 燃料의 多元化는 勿論 公害防止와 都市燃料의 轉換이라는 側面에서 LNG 導入을 推進中에 있다. LNG 事業은 經濟單位가 年間 300萬屯이 되어야 하므로 우선 1段階로 85年末까지 年間 150萬屯을 導入하여 發電用과 더불어 京仁地區의 産業用과 都市가스로 擴大 供給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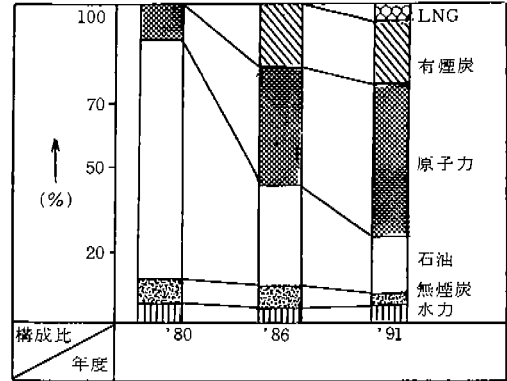
다. 石油代替 展望

石油火力發電所의 建設 抑制, 原子力 및 有煙炭發電所 建設 擴大로 石油火力의 比重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全體發電設備中 石油火力의 比重은 80年末 74%에서 91년에는 27%로 줄어들게 될 것이며 反面에 原子力은 6%에서 36%로 크게 늘어나고 有煙炭도 새로이 15%를 占하게 되며 天然가스가 4%를 차지하게 되어 石油에 代替될 原子力, 有煙炭, 天然가스의 比重은 6%에서 55%로 크게 늘어나 發電用 燃料 構造를 完全히 바꿔 놓게 될 것이다. 그러나 國內 資源인 水力和 無煙炭은 可用資源의 制約으로 因하여 크게 期待할 바가 못되며 水力, 揚水, 潮力 그리고 無煙炭을 모두 合하여 80年の 12%에서 91년에는 15% 程度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한편, 發電量에 있어서도 80年の 石油 78.7%, 原子力 9.4%, 石炭 6.6% 그리고 水力 5.3%의 構成에서 91년에는 石油가 17%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 反面 原子力이 51%, 有煙炭 20%, 天然가스 5%, 그리고 水力和 無煙炭等이 7% 程度로 될 것이다.

發電量 構成展望



5. 앞으로의 課題

가. 投資財源의 調達

經濟規模가 커지고 電源開發規模가 커짐에 따라 投資規模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3次 5個年計劃 期間中の 總投資額은 總 6,760億으로서 年平均 1,000億원 水準이었으나 4次 5個年計劃 期間中엔 80년까지만 해도 總 2兆 8,000億으로서 年平均 7,000億에 達하였다.

앞으로 5次, 6次 計劃期間中엔 年平均 1.5兆~2兆원이 所要될 것으로 보이며 約 20兆원 의 財源을 調達하여야 할 것이다. 電源開發事業의 成敗는 바로 이 원대한 投資財源의 調達에 달려 있다.

나. 燃料의 安定確保

4, 5次 計劃期間을 통한 果敢한 脫石油 政策으로 石油依存度는 크게 줄어들게 되나 原子力, 有煙炭, 天然가스가 모두 輸入에너지 資源이라는 點에서 輸入에너지의 比重은 如前히 80% 이상을 占하게 된다.

燃料源을 多元化함으로써 지나친 石油依存에서 오는 危險을 分散할 수는 있지만 燃料의 長期 安定 確保라는 側面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課題는 우라늄, 有煙炭, 天然가스를 어떠한 方法으로 長期 安定 確保하느냐에 國家經濟의 將來가 달려 있다고 본다.

다. 技術 및 人力開發

發電設備가 大型化, 效率化, 自動化되고 原

子力, 有煙炭, 天然가스 發電技術이 導入됨에 따라 이러한 分野에 대한 技術의 開發은 勿論 이러한 設備를 製作, 建設, 運轉할 수 있는 人力開發이 또한 重要한 課題로 登場하게 된다. 原子力發電은 特히 高度의 技術과 熟練된 技術者를 必要로 하는 것이며 앞으로 늘어나는 原子力發電 需要에 맞추어 技術人力을 養成해야 할 것이다.

#### 라. 公害防止

近來에 와서 環境保存과 公害防止 또한 重要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 有煙炭發電所는 特히 많은 公害를 隨伴하는 故로 이에 대한 事前對備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原子力發電에서 나오는 廢棄物의 處理 문제 또한 看過할 수 없는 公害問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 마. 消費節約

高價에너지 時代에 있어서 消費節約은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電氣의 浪費는 곧 기름의 浪費요 기름의 浪費는 바로 비싼 外貨의 浪費로 直結된다. 꼭 必要한 電氣는 비싸더라도 確保를 해서 供給을 해야 하겠지만 안써도 되는 電氣는 아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어느 다른 나라 못지 않게 強力한 節電施策을 펴고 있지만 國內 資源이라곤 거의 없는 우리 나라의 立場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節電施策은 더욱 強化되어야 하며, 政府의 施策에 앞서 國民各者가 節電을 生活化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電氣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産業用 電力의 使用 合理化를 推進해 가는 한편 電氣機器의 效率를 높일 수 있는 技術開發이 뒤따라야 한다.

(49p에서 계속)

## 産業用 電子器機 수출 注力

在歐과학자 120명  
참석

### 電子工業振興會 定總 — 8 개 推進사업 확정

8 차 綜合學術大會

韓國電子工業振興會(회장 金玩熙)는 18일 하오 2시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8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진흥회는 올해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부품업계의 경영수지를 개선하여 공급능력을 확대하며 산업용 기기의 수출산업화, 반도체 및 컴퓨터의 국내활용 확대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8개 부문의 주요 추진업무 계획을 세웠다.

부문별 추진사업은 우선 연내로 전자공업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 시장조사와 업체의 기본 실태 조사, 품목별 국산화율 조사 등을 실시

로 했다.

진흥회는 또 지난해 11월 전기용품협회가 흡수됨에 따라 전기용품 육성방안을 수립키로 했으며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출현황 분석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며 정부의 위임업무를 활발히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시장 개척 및 확장을 위해 거래 앞선업무를 강화하며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해외전시회 및 세일즈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는 전임 한국전자기술연구소장 韓相準박사등 5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三和콘덴서공장장 南宮용식씨등 70여명의 수출유공자를 포상했다.

제 8차 국내의 한국과학기술자 綜合學術大會가 오는 4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서울 흥릉소재 韓國科學技術院에서 열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在歐과학기술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在歐과학기술자 120명, 국내 과학기술자 2천 9백명여 등 모두 3천여명이 참석한다.

학술대회는 수학·통계·電算, 물리, 화학·化學工學, 生命科學, 금속·기계, 전자, 토목·건축, 産業工學, 에너지 등 9개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문 분야별 워크숍을 겸한 산업시찰과 일선 지구 및 교육기관, 연구기관등의 견학이 있을 예정이다.